

데스크시각



홍행기
정치부장 겸 편집부국장

지난 1973년 8월 하순. 스웨덴의 울로프 팔메 총리는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은행 강도에게 붙잡혀 인질이 된 은행 직원 네 명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틴 엔마크(여성·당시 23세)였다. 엔마크는 총리에게 “납치범과 함께 은행을 떠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끝내 불만을 터뜨렸다. “당신은 우리 목숨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인질범들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고, 절망적이지도 않은 상태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당신(총리)도 알겠지만,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은행 밖 경찰들이 우리를 공격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톡홀름 강도 사건의 경우

그해 8월 23일부터 6일간 벌어졌던 ‘스웨덴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은 사람들에게 ‘권력, 특히 압도적인 권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특이한 사례였다. 세간에는 ‘인질이 범인과 정서적으로 동조하는 비이성적 심리 현상’을 의미하는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

권력의 충돌

지만 이 은행 강도 사건은 궁극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 또는 권력자와 일반 대중 간의 어두운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을 비롯한 인질 네 명의 생명을 총으로 위협하는 강도들에 대해 분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엔마크의 발언은 권력 특히 ‘개인의 삶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권력을 상대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대중 또는 소시민의 불가피한 반응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당시 인질이었던 경찰에 구출된 엔마크는 사건 발생 20여 년이 지난 뒤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각자가 마주치는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가치와 도덕의 기준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자신을 비롯한 인질들이 총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과 전략적인 대응을 했다는 의미다.

‘은행 강도와 인질’ 같은 극단적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압도적인 권력’은 곳곳에 존재한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업의 대표, 입법·사법·행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판검사·장관들, 그리고 국정의 수반인 대통령 등이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압도적인 권력’이다. 납치범의 총처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 권력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수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정당성이 부여된 몇몇 강력한 권력들이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행사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정부 및 정치권 간 충돌은 권

력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배제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목표가 무엇이건, 이들 ‘압도적 권력’의 충돌로 터져 나온 파열음에 국내외 주요 현안들이 일기에 묻히면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통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민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통제되지 않는 압도적 권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개인이나 국민의 동조와 지지 또는 묵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바퀴 이야기하자면 ‘국민의 지지나 묵인이 없다면 압도적인 권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체감한 바 있다.

스톡홀름 은행 강도 사건 당시 총으로 무장하고 인질들을 위협했던 올슨(olsson)은 6일간의 인질극 끝에 경찰에 체포된 뒤 이렇게 진술했다. “그것은 인질들의 잘못이다. 인질들은 내가 시킨 모든 것을 다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여기에 있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날마다 내가 그들을 죽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마치 염소처럼, 쓰레기 같은 그곳에서 우리(강도들)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어 갔다. 서로를 알아 가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국민 모두가 헌법 1조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은펜칼럼



은은석
농협 광주공판장장

“도와줘요. 뽀빠이” 여자 친구 올리브의 구조 요청에 뽀빠이가 부리나케 뛰어나간다. 하지만 덩치 큰 블루토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나게 두들겨 맞는다. 궁지에 몰린 뽀빠이는 우여곡절 끝에 시금치 통조림을 들이켜 힘을 얻고는 약당들을 물리친다. 뿌우 뿌우~ 뱃고동 소리와 함께 주인공의 마지막 말은 언제나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진다는 뽀빠이 아저씨의 말씀”

70년대 인기였던 만화 영화 ‘뽀빠이’의 줄거리다. 이를 즐겨 보았던 세대들은 하나같이 시금치하면 알통 근육과 힘을 떠올린다. 시금치 통조림을 먹기만 하면 힘이 불끈 솟는 뽀빠이의 모습이 연상되어서다.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고 알려진 것은 1870년 독일의 과학자 울프(E. von Wolf)가 기고한 자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타이핑하던 여비서가 시금치 100g당 철분 3.6mg을 소수점을 빠뜨린 채 36mg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는데, 학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시금치 통조림 회사가 상업적으로 이용해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세지는 설정을 함으로써 스테

달짝지근 풍미 가득 겨울의 맛, 심초

미나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수점을 빠뜨린 시금치 신화가 근거 없는 사실임이 밝혀져 오히려 과학계의 가짜 뉴스를 경계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에서 그 사실을 주장했던 저자는 독일 논문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 않고, 소수점 이야기의 근거가 어디인지 밝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어느 잡지에서 읽은 것 같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연구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인용을 거듭하면서 과학계에 서는 마치 사실처럼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뽀빠이의 선택이 옳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이어져 나왔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연구팀은 시금치에 들어 있는 호르몬 엑디스테론이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10주 동안 체력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 4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는데, 한쪽에는 매일 엑디스테론을 복용하게 하고, 다른 대조군에는 위약을 먹도록 했다. 그러자 엄청난 차이가 생겨났다. 근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짐작은 했지만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힘과 운동 능력도 3배나 향상되었으며, 누워서 역기를 드는 벤치프레스에선 최대 능력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역시 ‘채소 베스트 푸드 5’에 시금치를 포함시켰으며,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 포스트’도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시금치와 레몬을 꼽았다. 시금치, 케일, 근대 등 식물에 있는 철

분은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되고, 레몬 주스나 약간의 딸기, 피망을 더하면 식물성 철분이 생선이나 고기에 있는 형태로 변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기운을 북돋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시금치는 명아주과에 속하는 1~2년생 풀이다. 아르메니아로부터 이란에 걸친 지역이 원산지인데 페르시아, 아라비아, 지중해 연안 여러 나라를 거쳐 유럽으로 퍼졌고, 중국에는 3세기경 이란으로부터 전해졌다. 1577년(선조 10)에 최세진이 편찬한 ‘훈몽자회’(訓蒙字彙)에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는 조선 초기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내한성이 강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재배되지만, 겨울철 시금치로는 우리 고장에서 나는 심초가 으뜸이다. 한겨울 추위 속에 바닷바람과 눈서리를 견디느라 땅바닥에 눕다시피 불어 지란 심초의 달짝지근한 맛은 키 큰 일반 시금치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두터운 잎은 삶아도 흐물거리지 않아 씹는 맛이 좋고, 선도가 오래 가 쉽게 상하지 않으며, 밑감과 비슷할 정도로 당도가 높기 때문이다. 가격은 또 얼마나 착한지, 4인 가족이 몇 끼 먹고도 남을 한 봉지에 2000~3000원이면 족하니, 이 추위에 발에서 수확하는 농업인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다.

서리가 잔뜩 내린 겨울 아침. 살짝 데친 심초에 마늘과 파를 다져 조물조물 무친 다음 참기름·깨소금 올린 시금치 무침과 조갯살 약간에 된장과 고추장 푼 시금치 토장국으로 아침을 먹고 나서면 든든없는 호기마저 생긴다.

기고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우리 광주 공동체에 또 하나의 거대한 자랑거리가 생긴다. 바로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다. 습지가 뭐 별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등산 국립공원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장록습지의 국가 보호 습지 지정은 세계적으로도 일대 사건이다.

도시 안에 국가 습지가 있는 곳은 광주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아니 전 세계에서든 유례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순천의 순천만, 울산의 태화강에 국가 정원이 있지만,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공간이다. 또 전국에 수많은 습지가 있지만 모두 산속 깊은 곳이나 바닷가와 같이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인간의 개발 행위가 쉽지 않아 경관과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된 곳이다.

국립습지센터는 2019년 2월부터 10개월 간 정밀 조사를 시행한 결과 장록습지가 멸종 위기종인 삼, 새호리기, 흰목물새떼를 포함해 생물 829종의 보급자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물론 다른 국가 보호 습지와 비교

우리가 바라는 미래, 장록습지

하면 그렇게 생물 다양성이 윤희하진 않다. 장록습지가 광주 송정역과 선운지구 바로 옆 도시 안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개발 압력 속에서도 자연 생태계가 굳건히 유지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수많은 개발이 가능한 공간이 바로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장록 습지를 지켜왔다. 장록습지 인근의 주민들이 지켰고, 광주 공동체가 함께 아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광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 조사에서도 찬성 85.8%, 반대 14.2%로 나타난 것을 보면 시민들의 자연 사랑의 의지가 엿보인다.

필자는 가끔 순천만과 장록습지를 비교해 상상한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순천만도 처음부터 지금같이 멋진 경관을 가진 곳은 아니었다. 인간이 버린 수많은 쓰레기와 개발로 버려졌던 공간이었다. 순천 시민의 힘이 모여 십여 년의 노력 끝에 지금의 순천만이 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멋진 경관을 가진 곳이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장록습지다. 습지의 명칭이 어색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가서 본 사람은 그 엄청난 경관에 입을 담을 줄 모른다. 바로 옆 대규모 주택 단지와 평등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앙에서 유려한 경관을 뽐낸다.

이제 우리는 장록습지가 국가 습지보호구역이 되면서 새로운 생태적 개발을 창조할 기회를 얻었다. 장록

습지 인근에 앞으로 개발될 KTX 투자선도지구, 광주 송정역은 장록습지를 통해 더 멋드러진 발전이 가능해졌다. 개발 지구를 장록습지와 연결해 계획한다면 거대한 공원 녹지가 주변에 펼쳐질 것이다. 마치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면 멋지지 않은가.

바쁜 일상과 팍팍한 도심의 삶 속에서 가슴의 숨통을 트여줄 공간이 펼쳐질 것이다. 혹시 광주 송정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에 잠시 짬을 내 5분만 걸어가면 국가 습지인 장록습지가 펼쳐진다.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디 있는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먹고사는 것만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에서 모든 도시가 포기했던 것을 광주는 그동안 고이 품고 아꼈고, 이제 함께 모든 시민들과 나눌 시간이 되었다. 도심 속 생태 공간이 시민과 행정의 노력으로 새롭게 태어날 기회가 열린 것이다.

코로나19로 팍팍한 일상과 긴장의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구역의 지정에 함께하고 노력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시민과 행정의 협치가 빛을 발한 증거다. 광주가 자연과 사람이 대화하는 도시 공동체임을 보여준 과정이자 성과이다.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도시의 미래 모델을 보여준 위대한 사건이다.

社說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의지 과연 있긴 한가

문재인 정부 4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이 힘을 잃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나 부동산 정책 논란에 휩싸인 정부·여당이 선거 전 막대한 마블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전국에 열 개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현재 호남권의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수는 89개(12%)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당정은 충청권 지원에만 나서고 있다. 특히 국회는 최근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사업에는 총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연구기관이 몰려 있는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나후 지역이 아닌 대전·충남의 새 혁신도시에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를 전국 혁신도시에 균등 배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전략의 하나로 특정 권역을 겨냥한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이제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적 이슈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도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당정은 호남 등 나후 지역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저감 대책 기대된다

광주 공항은 전국 공항 중 소음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은 정도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기준 광주 공항 평균 소음도는 85웨벨(WECPNL·항공기 소음의 평가 단위)로, 가장 낮은 양양 공항(59웨벨)보다 26웨벨이나 높았다. 인천 공항도 69웨벨 수준이다.

특히 광주 송대동 일대는 90웨벨, 우산동 일대는 88웨벨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제1전투비행단이 광주 시민을 위한 ‘통근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전국 군 공항 시설 중 처음으로 자치단체인 광주시와 손잡고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훈련시간 조정 등에 합의한 것이다.

이제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오석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은 광주시청에서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공군제1전투비행단

이 균형공기 소음 민원 해소와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광주시는 공군의 소음 저감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또 소음 저감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모의훈련 확대, 야간훈련 최소화, 이착륙 절차 개선 등 소음 저감 대책을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야간 비행 최소화’와 ‘작전 스케줄 조정 등으로 소음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의 의미가 있는 것은 소음 피해 저감 대책이 효과를 볼 경우, 앞으로 군 공항 이전에도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의 통근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無等鼓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이 ‘잠시 멈춤’에 들어갔다.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면서 또 한 번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반면 부동산 가격은 전국 각지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국내 주식 시장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양극화는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서로 상반되는 방향으로 분리되는 현상인데,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나뉜다. 주로 경제적 양극화의 결과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정치적인 양극화도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고는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간 양극화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3분기 5분위 배율(소득상위 5분위 소득을 하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은

4.88로, 전년 동기보다 0.22배 커졌다. 그만큼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지리적 위치나 학력 차이 혹은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가 전 세계에서 심화하고 있다. 그 결과는 중도 정치의 소멸과 서구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이어진다. 폴 콜리어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의 미래’에서 이 같은 현상이 모두의 변명을

약속했던 자본주의의 실패와 사회적 양극화로 패가 빛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주로 경제적 양극화의 결과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최근 정치적인 양극화도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고는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 간 양극화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윤리에 근본을 두고 개인부터 가족·기업·국가가 ‘호혜적 의무’를 수행하는 자본주의다. 다양한 윤리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여러 이해득실을 실용적으로 절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까지 내다보며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등 일시적이고 단기적 처방이 아닌,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ckki@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에ditor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4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52 | 체육부 220-0621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